

KDI “올해 3% 성장 어렵다”

1년 만에 2%대로... 내년 성장률 2.7% 제시 경제성장 속도 낮아지지만 급락 표현 지나쳐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유지했다.

치구 문제와 산업경쟁력 저하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면서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3% 경제 성장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보다 더 낮은 2.7%로 제시했다. 다만 성장 속도가 더디지는 흐름을 ‘급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봤다.

통화정책을 포함한 거시경제정책을 현재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고 경제·산업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해야만 우리 경제의 활력 저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KDI가 31일 발표한 ‘2018년도 상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9%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제시한 전망치와 같지만 정부와 한국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예상하는 3%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다.

반기별로는 상반기 2.9%, 하반기 2.8%를 각각 제시했다. 직전 전망치와 견주면 상반기는 0.2%포인트 낮아졌고 하반기는 동일하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보다 더 낮은 2.7%로 제시했다.

KDI 전망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2014년(3.3%) 이후 3년 만에 3%대 성장을 달성하고선 1년 만에 다시 2%대로 떨어져 내년에는 2012년(2.3%)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세계경제의 견실한 성장세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가 대체로 유지되었지만 설비·건설 투자의 빠른 둔화로 내수 증가세가 더디지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총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전반적인 경기 상황은 일단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여전히 판단해 2.9% (전망치) 유지한다”면서도 “내용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다. 세계 경제 성장세가 유지되는 해에 수출에 나타나 GDP에 0.3%포인트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민간소비가 과거보다 0.1% 정도의 상승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이어 “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를 반영하고도 성장률 전망치가 같다는 것은 하향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생각보다 내려가 기저효과가 생긴데다 생각하지 못했던 외생적 충격 변수들이 있다”며 “현재 원화 가치가 3% 가량 상승하고 유가가 예상보다 20%포인트 오른 상태라 생산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다. GDP를 0.1%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장은 “최근 경기논쟁과 관련해 ‘급락세’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며 “성장세의 속도가 좀 낮아진다는 정도로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며 성장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 특히 산업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가시화되고 있다는 부분은 장기적인 정책 방향으로 맞춰야하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올해 총수출(물량) 증가율은 세계경제 성장률과 교역량 증가세의 견실한 유지로 직전 전망치와 같은 3.8%로 전망했다. 반면 수입 증가율은 수출 확대에도 투자의 빠른 둔화로 인해 지난해 12월 전망치(3.7%)보다 0.1%포인트 낮춘 3.6%로 봤다. 내년 총수출

증가율과 수입 증가율은 올해보다 낮은 각각 3.5%, 2.6%로 예측했다.

올해 총소비는 직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상향한 3.2%로 제시했고, 내년(3.0%)에는 올해보다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자산가격의 상승과 비영리단체 지출, 일자리 관련 정책의 효과로 일시적으로 확대돼 올해 2.8%로 늘어난 뒤 내년 2.6%로 증가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설비투자는 전년도(14.6%)에 이례적으로 높았던 반도체 관련 투자의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증가폭이 3.5%로 축소되고, 내년에는 1.0% 증가에 그칠 것으로 봤다.

건설투자는 전년에도 큰 폭으로 하락한 주택착공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감소(-0.2%)로 전환하고선 내년에는 2.6% 감소폭을 확대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785억 달러보다 축소된 669억 달러, 내년에는 올해보다 확대된 726억 달러로 전망했다. 상품수지와 서비스·분원·이전소득수지는 올해 각각 1151억 달러, 48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측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대에 못미치는 올해 1.7%, 내년 1.6%로 전망했다.

올해와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지난해의 31만6000명에 비해 낮은 20만명대 증반과 초반을 기록하고, 실업률은 지난해와 동일한 3.7%로 예측했다.

KDI는 대외위험 요인 중 세계교역량 증가세 확대를 성장률 상방요인으로, 주요 수출품목의 단가 하락과 대외경쟁력 악화 등을 하방요인으로 지적하고, 내년도 거시경제정책은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시스

“보안카드, OTP 없이 송금하세요”

우정본부, 우체국 모바일 간편송금 서비스 송금한도 1회 200만원... 수수료 전액 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스마트폰에서 보안카드나 OTP(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 없이 송금할 수 있는 우체국 ‘모바일 간편송금 서비스’를 6월 1일부터 제공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우체국스마트뱅킹에서 소액을 송금할 때 보안카드나 OTP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송금한도는 1회 200만원, 1일 300만원이다. 타행 송금 수수료는 종전과 동일하게 전액 면제된다.

서비스 가입은 보안카드나 OTP 번호를 입력해 1회 송금하

면 자동 등록된다. 포스트페이 이용자는 별도 등록절차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중 스마트폰을 교체하면 서비스가 자동 해제된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우체국 또는 우체국 예금고객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스마트뱅킹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송금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간편식 드세요”

지난 31일 서울 출플러스 강서점에서 모델이 자사 간편식 브랜드인 올어바웃푸드(All about food) 대표 행사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유니클로, ‘에어리즘’ 대규모 샘플링 이벤트

유니클로는 7월 말까지 총 2만명에게 가능성 이너웨어 ‘에어리즘(AIRism)’을 증정하는 대규모 샘플링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온라인을 비롯해 전국 주요 대도시 등에서 진행된다.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간단한 설문조사 응답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결과에 따라 준비된 제품 중 하나를 증정한다. 준비된 증정품은 남성용의 경우 봉제선이 없어 정장 셔츠안에 입기 좋은 ‘에어리즘심리스 V넥 티셔츠’, 통기성이 뛰어난 ‘에어리즘 메쉬 탱크 탑’, 오랜 시간 앉아있어도 쾌적한 느낌의 ‘에어리즘 북서 브리프’ 등이다. 여성용은 ‘에어리즘탱크탑’과 ‘캐미솔’, 봉제선이 드러나지 않는

‘에어리즘 심리스 쇼츠’ 등이다.

온라인을 통한 참여는 7월 11일까지 ‘마이 에어리즘’ 모바일 사이트에서 진행된다. 설문 응답을 통해 이벤트 참가 신청을 하면 매주 금요일 당첨자를 선정한다. 당첨자는 가까운 유니클로 매장을 방문해 교환권을 보여 주변 상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개인 SNS에 인증샷을 남기면 우수 게시물을 선정해 시은품을 증정하는 후기 이벤트에도 참가할 수 있다.

오프라인 이벤트는 6월 7일 광화문 일대를 시작으로 대형몰, 야구장 등 주요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일부 유니클로 매장 주변에서도 에어리즘을 수령할 수 있는 샘플링 쿠폰 증정 이벤트가 진행된다.

/뉴시스

예보, ‘예금자보호제도’ 수화영상물 제작·배포

예금보험공사(사장 박범국)는 지난 31일 청각장애인이 예금자보호제도의 핵심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화영상물 ‘순공으로 전하는 예보제도’를 제작해 배포했다.

청각장애인 교육영상 ‘예금자보호제도, 이것이 궁금하다’와 금융회사 활용영상 등 총 2종으로 구성됐다.

청각장애인 교육영상은 금융상품 가입 시 보호금융상품 확인방법, 예금보호한도, 보호금융회사, 보험금 수령방법 등 예금자가 꼭 알아야 할 예금자 보호제도 관련 정보를 수화영상으로 제작했다.

금융회사 활용영상은 금융회사 객장에서 청각장애인에게 예금보험관계의 성립여부 및 보호한도를 편리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 안내문을 수화로 표현했다.

해당 영상은 예보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제공된다. 은행, 저축은행 등 부보금융회사에는 해당 영상이 링크된 QR코드가 포함된 예금보험관계 홍보물을 배포한다.

/뉴시스

이스타항공, 6월1일부터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



이스타항공이 6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통해 9월, 10월 출발 항공편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국내선 4개, 국제선 21개 노선이 대상이다. 국내선은 편도 총액 운임 최저가 1만8900원부터, 국제선은 일본·동남아·중국 노선 등 주요노선에 대해 편도총액 운임 최저가 6만5900원부터 구입이 가능하다.

이스타항공의 얼리버드 이벤트는 매달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출발 3~4개월 전 항공권에 대해 미리 저렴한 가격으로 선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정 특가 이벤트다.

3~4개월 전 항공권을 예약할 수 있어 5월 이벤트를 놓친 고객은 6월 이벤트를 통해 한 차례 더 9월 특가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다.

/뉴시스

관광공사 ‘어서와, 한옥은 처음이지?’

한옥 체험 관광상품 선보여

전통 한옥이 침체한 한국 관광을 부흥시킬 선봉장으로 나선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인영배)는 ‘한옥 체험 관광상품’을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이 상품은 4월 관광공사가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이색 여행상품이다. 한옥에서 숙박하거나 다도 등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인근 관광지를 둘러보는 일정으로 구성한다.

내국인 상품 9개(수도권 1·강원권 2·경상권 3·충청권 1·전라권 2개), 외국인 상품 2개(경상권) 등으로 현재 각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 중이다.

이 중 외국인 대상 상품은 ‘자전거로 떠나는 경주 역사문화 탐방’ ‘신비의 고장 영주 답사’ 등 테마로 한옥에서 ‘인절미 만들기’ 체험 등 한국 전통문화를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문체부는 전국의 70년 이상 된 전통

한옥 중 84개소를 선별해 ‘명품고택’으로 지정했다. 관광공사는 전국 123개(변동 가능) 우수 한옥 숙박시설을 골라 ‘한옥스테이’라는 명칭을 부여했다.

관광공사는 국내외 관광객이 전통문화인 한옥과 지역 관광자원을 즐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상품 운영 여행사의 상품 홍보를 지원한다.

연말에는 우수상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